

# 46

##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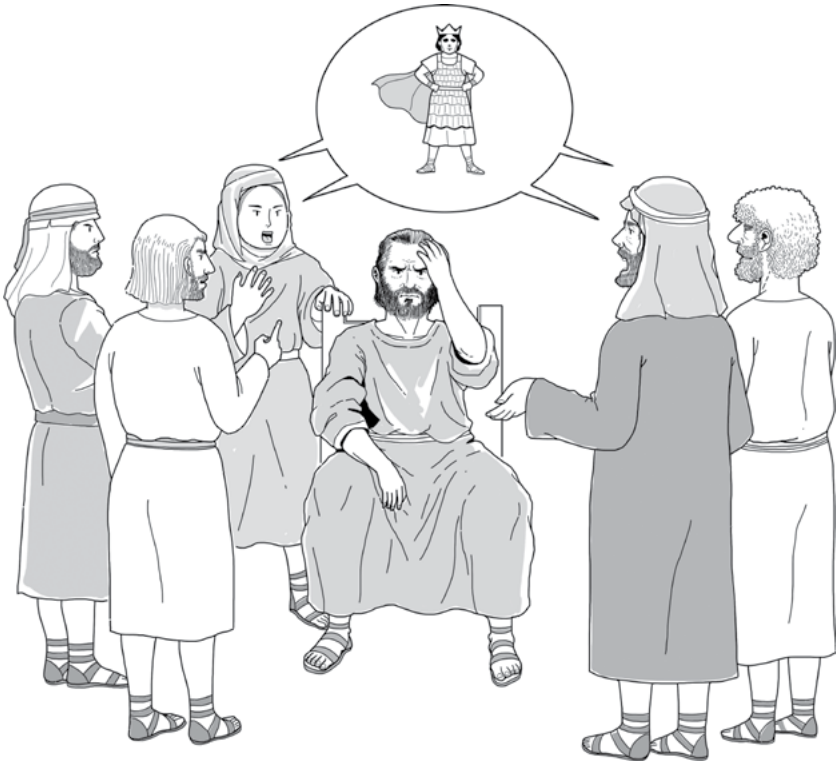
삼상 8장, 신 17:14~20

은혜찬송 77장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97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배울



1.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와 그 문제점을 압니다.
2. 법사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우리에게 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6~7)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눅 19:38)

saying: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Lk 19:38)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시다(삼상 8:7, 20).

②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왕의 제도를 정리해 봅시다(삼상 8:11~17).

③ 하나님께서 명령한 왕에 대한 규례를 정리해 봅시다(신 17:14~20).

④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높아진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반성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삼상 12: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의

눅 6:4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화

요 12:4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

고전 16:22

---

---

---

---

---

---

---

---

↓

빌 2:21

---

---

---

---

---

---

---

---

↓

딤후 1:15

---

---

---

---

---

---

---

---

↓

딤후 4:10

---

---

---

---

---

---

---

---



## 루터를 향한 사단의 정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려움에 빠져서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악마가 나타나서 말하길 “마틴 루터 넌 큰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잘못된 죄의 목록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이에 루터가 맞받아 대답하길 “잠깐만, 한 가지만 말하자. 그래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 말만은 사실이다. 나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이제 주님안에서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 사단아 어서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루터는 악마를 물리쳤고 악마는 루터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질문 있어요~



보증 서는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은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집뿐 아니라 아들들까지 종으로 팔려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산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보증 서는 것을 예상롭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큰 일을 당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체면 봐주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 11:15)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 17:18)

이유 없이 남의 보증이 되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잠 22:26~27)

동업도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100% 손해를 봅니다. 잘 돼도 그렇고, 잘못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동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믿는 사람끼리 동업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책임질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동업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 각오가 돼 있어서 조금도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든지 하면 보증을 서도 될 것입니다.